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오직 한 길

신윤식

물은 어느 길로
흐르는가에 따라
생수가 되기도 하고
오수가 되기도 하는 것

인생도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생명 길이 되기도 하고
멸망 길이 되기도 하는 것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
길을 정해 놓고
그 길로만 가는 사람

평생을 도 닦으며
길을 찾다가 끝나는 사람
잘못된 길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종교가
철학이
길을 제시하지만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 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1.4

발행호수 제20권 44호

본 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6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들의 눈에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자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을 초청할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본문의 바리새인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랐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초청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39절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라는 말과 40절의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는 말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한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으로 여김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

주일오전설교
눅 7:36-50

**사랑이
많음이라**

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만을 가진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꼭 나타나야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동네에서 청녀로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울며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한 향유를 발에 부어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한마디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보면 여인의 믿음은 곧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

음 과 '사랑' 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가 세상의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과 휴머니즘에 의한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혹시 인간의 선행이나 동정, 연민과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일 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교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것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고 여인은 자기의 죄를 깊이 그리고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바리새인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여인이 다가와서 하는 행동을 물리치고 멀리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선생인 예수님과 역시 선생으로 추앙받은 자신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죄인인 여인과 같은 사람은 감히 다가올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이 더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여인이 자신이 벌린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성에 붙들린 채 예수님을 초청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에 마음을 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자신의 가치성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종과 같은 낮아진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고 향유도 붓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인이 향유를 팔아서 좋은 일에 사용했다면 죄인으로 낙인찍힌 자신의 이미지가 조금은 나아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죄가 큰 자일수록 그에게 예수님은 더욱 존귀한 분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고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 받은 자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가 곧 죄 지은 여인이고,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인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겼지만 여인은 크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아니면 여인으로 나오는가?' 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여인처럼 크게 여기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가볍게 여기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크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내게 필요한 분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크게 여기고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하고 죄와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

를 멀리하고 죄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을 용납하지 않고 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죄 역시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크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께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는 수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용서를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성에 붙들렸던 마음이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가치와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 받으며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만 그 여인의 삶은 여전히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용서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평안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에는 참여할 수 없는 먼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인처럼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시 89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이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 구절인 52절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

어다 아멘 아멘”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89편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단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제는 즐거워서 노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찬송은 이 세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찬송보다는 불평과 탄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송시라고 하는 본문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47절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을 두고 탄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찬송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두고 보면 허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때는 정말 짧습니다. 100년의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70,80년이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보다 더 빨리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빨리 들어가 끝나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허무하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깊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오우설교

시 89:1-18

하나님 찬양

(93강 9.30일 설교)

이것을 보면 시편 저자의 탄식은 단지 짧은 인생만을 생각하며 한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탄식과 찬송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한 탄식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식이 없는 찬송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생의 허무함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탄식에만 머무르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탄식과 함께 찬송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탄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이 여러분을 불평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다른 점은 그러한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생생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낙심과 탄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빛으로 다가오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존귀한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수시로 변한다면 인간이 잘할 때는 사랑하시고 못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변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낙담함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간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성품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아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성질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 믿음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인자와 같은 성품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자신의 인자는 인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 실망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신뢰를 두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또한 타인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그 누구도 같은 자리에 변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붙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곧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한결같은 인자와 성실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셀라)**” 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6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신입니다. 따라서 성실은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히 신을 믿고 섬기는 자를 복주겠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늘 변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성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현대 교회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찬송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허무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였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인간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성실하심을 폐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33,34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바스홀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스홀은 제사장이며 여호와의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당시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합니다. 바스홀이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 때문입니다.

19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져서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잡아 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스홀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심히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바스홀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세상은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밀쳐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으로 세상이 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하고 신기한 현상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했으면 유대 사람들이나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말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개인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자신들을 책망하고 멸망을 예고하는 기분 나쁜 말로 들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스홀은 제사장이며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요일설교
렘 20:1-6

예레미야와
바스홀

(51강 10.3일 설교)

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스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치 신학박사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귀에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들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레미야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붙들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말로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초점을 사람에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이 복음이나 복음이 아니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보면서 복음으로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말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 끌어들이고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도 무시 받고 천대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가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것처럼 세상에 나타내시고 말씀 전하는 자 또한 무기력한 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특이한 기적적인 현상과 함께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보다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은총의 사건임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바스홀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운 나무 고랑을 풀어 줍니다. 아마 혼이 난 예레미야가 다시는 그와 같은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니다. 그런데 나무 고랑에서 풀려난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고 예언합니다. 바스홀은 평화라는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 마골밋사빔은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장차 바스홀이 겪게 될 일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으로써 유다가 겪는 처참한 일을 목격함으로써 공포에 질려싸이게 될 것이고 바스홀 또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며 말씀을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것이 없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안을 외쳤을 것입니다. 바스홀을 향해서도 그 이름을 마골밋사빔이라고 하면서 유다가 당할 재앙에 대해 변함없이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바로 이 일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의 역사와 능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신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참된 세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44(144)장

교 독 : 39(시95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508(270)장

성 경 : 눅 7:36-50

말 씬 : 사랑이 많음이라(3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63(41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33(490)장

기 도 : 명기룡 집사

찬 송 : 446(500)장

성 경 : 시 92:1-15

말 씬 : 주께서 행하신 일(9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5(41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4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이겠습니다.
2. 18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이화영 권사

이단 ③

그 어떤 이단도 인간의 종교성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인간의 종교성과 무관한 것이기에 누구든 신앙과 종교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단 역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도 된다. 종교성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신을 찾는 것을 말한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신을 찾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다. 자신을 위해 신적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다는 자기 사랑,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종교인 것이며, 이러한 종교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무리가 곧 이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이 어떤 무리들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신자는 신앙과 종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앙과 종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누릴 자신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세계를 약속하셨고 그 세계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관심과 성경의 증거는 애초부터 그 방향이 다르다. 여기에서 신앙과 인간의 종교성이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가 드러난다.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마음을 두면서 신의 도움을 받아 그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롬 1: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들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향한 관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며 추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단의 교묘한 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추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단 분별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과 재림에 관하여 철저히 성경대로 전하기를 힘쓰게 된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키고 사람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변개하여 가르친다면 결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별하며 사람의 뜻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두며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자 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참된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이단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뛰어 넘어 인간의 호기심과 종교성을 자극하며 마치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